

# 한국 기독교소설에 나타난 성경적 상상력

-개화기 기독교소설을 중심으로-

김 경 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1. 서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다. 언어와 상상력이 결합될 때 문학이 되며, 문학은 삶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성경은 기독교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크리스천 작가가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인간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훌륭한 기독교문학이 된다.

기독교문학의 감동은 등장인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데서 찾아온다. 이는 독자에게도 변화의 동기를 부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한 개인을 변화시킨다. 한 가정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서 펼쳐진다.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 거듭난 삶을 살게 한다. 이러한 진실된 변화의 광경을 그려내는 것이 곧 기독교문학이다.<sup>1)</sup>

한국 문학은 개화기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그 면모를 새롭게 바꾸어 간다. 우리의 개화기는 모든 영역에서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외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여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예비의 시기였다.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귀츨라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갔다. 토마스 목사는 1865년에 중국어 신약성경을 전해 주고 황해도 해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로스, 이응찬 등이 참가한 최초의 번역성경인 누가복음서가 1882년에 나오고<sup>2)</sup>, 이수정이 마가복음서를 1885년에 간행하였다.

우리 어문학은 성경과 찬송가가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소설과 시에 기독교 정신이 형상화되면서 개화기의 기독교문학이 꽃피게 된다. 한국의 기독교문학은 조선조의 기독교문학, 개화기의 기독교문학, 현대의 기독교문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sup>3)</sup> 개화기의 기독교소설로 <다정다한> <몽조> <박연폭포> <금수회의록> <경세중> <성산명경> <고영규전> <부부의 모본> <고목화> <재봉춘> <눈물> <두견성>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개화기에 나온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소설<sup>4)</sup>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에 나타난 성경적 상상력을 연구하여 그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성경과 개화기의 기독교소설

1) 김경완, 기독교문학과 삶의 변화,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5쪽.

2) 崔泰榮, 基督教의 神名考-「하나님」으로의 정착-,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2쪽.

3) 소재영, 「한국문학사상과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도서출판 풍만, 1987. 86쪽.

4) 개화기의 기독교소설에 대한 언급이 있는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송민호, 韓國 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0.

이재선·김학동·박종철, 開化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81.

조신권, 韓國文學과 基督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소재영, 「한국 문학사상과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도서출판 풍만, 1987.

권영진,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양상」, 『한국 기독교와 예술』, 도서출판 풍만, 1987.

김영환, 한국 사회와 기독교문화, 위의 책.

소재영·권영진·한승옥·조규익,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홍일식, 韓國 開化期의 文學思想 研究, 열화당, 1991.

김우규, 「한국 작가의 기독교 의식」·「한국 기독교문학 소사」, 『기독교와 문화』, 종로서적, 1992.

권보드래,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금수회의록〉, 〈경세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 도서출판 월인, 1998.

소재영·김경완, 개화기소설, 한국 기독교문학총서 1,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개화기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대 혁신을 체험하게 된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는 동양적인 유불선 삼교의 정신적 토양에 이질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며, 조선시대의 군주체제를 극복하여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고, 1900년 초에는 서구 개화사상의 첨병으로 이 땅의 개화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sup>5)</sup>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기독교는 교육사상과 학교의 설립·의료윤리와 병원의 설립·계몽의식과 인쇄출판사업의 전개, 성경보급과 예배당의 건축 등을 통해 한국 전통사상과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1907년은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있어서나 신문학사에 있어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 해였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이땅에 깊이 뿌리내리며 민족종교로 발전을 시작한 해이며, 신문학에 있어서는 1906년 이인직의 「혈의 누」 발표로 열린 개화기소설의 문이 1907년에 와서 단행본으로 출간됨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시기였다.<sup>6)</sup> 우리의 초기 기독교가 구한말 짧은 시일내에 일반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선교적 종교일뿐만 아니라 개화의 운동, 즉 문화변혁적 에너지로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의 번역과 찬송가의 간행은 한글과 시가문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 성과는 당연히 國文文學의 양적이며 질적인 발달로 이어졌다. 1895년은 대표적인 서양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작품<sup>7)</sup>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아라비안 나이트>의 변안인 <유옥역전><sup>8)</sup>이 그것이다. <천로역정>은 선교사 게일에 의해 최초로 번역된 기독교소설이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개화기소설은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내용, 즉 자유·평등·박애·민주주의·영혼구원 등에 의한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기독교소설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성경은 번역어로서 평이한 언문일치의 한글을 채용함으로써 조선 5백년 동안 정처없이 표류해 온 우리나라의 문자생활과 언어생활에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 성경의 국역은 성경의 급속한 보급과 개화기소설 이후의 표기체계의 주류가 되는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운동의 선두적 역할을 하였다. 성경이 지닌 독특한 표기체계, 語와 文의 구조, 문체 및 新語의 제작 등이 언어생활에 들어와 국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소설인 반야의 <夢潮>, 백악춘사의 <多情多恨>, 안국선의 <禽獸會議錄>, 김필수의 <警世鐘>, 최병현의 <聖山明鏡>, 이상춘의 <朴淵瀑布>, 선교사 배위량부인의 창작소설 <高永規傳>·<부부의 모본> 여덟 작품을 고찰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투영된 성경적 상상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 3. 고통 극복 유형의 기독교소설과 성경적 상상력

#### 1) <다정다한>

<다정다한>은 1907년 1월 24일과 1907년 2월 24일자로 각각 간행된 '태극학보' 통권 6호와 7호에 실린 개화기 기독교 소설이다. <다정다한>은 모두 일곱개의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은 삼성선생이다. 삼성선생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이지만 실제 작품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의 삶은 기독교정신에 근거한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는 작자의 가치관이 기독교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정다한>의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은 대한 광무 5년경 즉 1901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태극학보에 이 소설이 게재된 때가 1907년이므로 창작시기와 작품 속 시대배경의 시기 차이는 불과 6년 정도임이 드러난다. 이는 지은이가 작품 속에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韓承玉, 「基督教과 小說文學」, 공저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107쪽.

6) 李秀浩, 開化期の 基督教의 要素,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60쪽.

7) 김병철,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 을유문화사, 1980. 71쪽.

8) 蘇在英·金京完, 『유옥역전』 해제와 원문, 송실어문 제13집, 송실어문학회, 1997. 419~458쪽.

9) 김병철, 「성서번역사」,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70~72쪽 참조.

이 작품은 만민공동회가 불의의 기습을 받아 항거하는 우리 겨레의 모습을 보여준다. 개화기소설답게 개화기의 시대문제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자 한 지은이의 의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태극학보의 편집자 장웅진이 활동했던 영역이 학교와 학회 등이었고, 그의 활동 목적이 교육을 통한 민족독립과 계몽 및 개화에 있었고, 그 정신적 바탕이 기독교신앙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장웅진이 활동한 범주가 바로 <다정다한>의 창작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웅진의 호가 '白岳'이라는 사실만으로 <다정다한>의 필명인 '白岳春史'를 장웅진으로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나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백악춘사'를 여전히 장웅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다정다한>의 창작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건양 원년(1896년)에 경무국장으로 영직에 있던 삼성선생은 독립협회로 바뀐 만민공동회의 모임을 도록하라는 당국의 명령에 거절하자 목포경무관으로 강등되어 인천항으로 내려가게 된다. 공직에 있으면서 일의 사리분별에 밝고 백성을 사랑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주인공의 의연한 기백과 이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를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다정다한」과 연계시켜 볼 때, 경무국장의 지위에서 목포경무관으로 강등되는 것은 '다한'에 해당되지만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다정'을 선택한데 따르는 결과이기도 하다. 삼성선생의 '다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된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의 결미에서 더욱 온전해진다.

自後로는 一團中에 耶蘇를 信依호는 마음이 날노 두터워, 獄中에서 祈禱 讚美호며 歲月을 보노더니, 人事가 窮則必變호고 苦盡甘來로다. 青天白日下에 無罪放免호는 몸이 되야, 三年 만에 獄門을 辭出호고, 世上에 나와서도 此有志團은 獄中誓約을 不變호고, 上帝의 뜻을 받드리 社會事業과 公共慈善等 事業을 一心으로 經營호는디, 先生은 至今도 一身을 救世에 自委호야 傳道事業에 熱心 從事호내다. 아멘.<sup>10)</sup>

삼성선생은 옥중에서의 모든 고통을 무죄방면 받음으로 '多恨'의 멍에를 벗어난다. 뿐만아니라 옥중 독서를 통해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社會事業'과 '傳道事業'에 열중하게 됨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多情'의 役事を 펼쳐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삼성선생이 자신의 義를 바탕으로 나라사랑과 민족애를 실천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삼성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義로 사회사업과 영혼구원에 정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가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삶이라면 후자는 내세적이고 헌신적이며 영적인 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는 전자를 포괄하면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作者는 주인공 삼성선생이 사회사업과 공공자선 등의 사업 및 전도사업에 열심인 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 주제 부각의 지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 보이는 '아멘'이라는 표기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의 기독교 신앙용어로서 作家의 기독교 신앙적 의식을 가늠하게 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작중 독서 삽화로서 동부지방에 살던 한 부인이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스토리나 삼성선생이 나라사랑과 민족애를 실천하기 위해 열정을 쏟다가 옥중생활도 불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과 유비<sup>11)</sup>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삼성선생의 탁월한 성품과 활달한 기개, 애국정신, 애민정신, 미신타파정신, 인재양성의지와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作家의 희생정신, 自慰自樂精神, 진리탐구정신, 십자가정신, 하나님중심의 신앙과 삶에의 추구를 기독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미를 높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삼성선생은 애국지사가 고난속에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여 역경을 극복하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작품속 인물변화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耶蘇를 信依호는 마음이 날노 두터워, 獄中에서 祈禱 讚美호며'라는 대목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연상할 수 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

10) 「多情多恨」, 307쪽.

11) 사물 상호간에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지만 기도하며 찬미한다는 내용이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바울과 실라에 관련된 성경의 기도와 찬미 모티프가 성경적 상상력에 근거하여 <다정다한>에서 삼성선생의 변화된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몽조>

<몽조>는 1907년 8월 12에서 같은 해 9월 17일까지 《황성신문》에 2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작품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40매 정도이며, 24회에 걸쳐 원고지 10매 정도씩 게재한 꼴이다. 순 한글의 문체를 사용했으며, 괄호 속에 어려운 한자어나 고유명사를 표기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개화주의자이며 애국자인 한대홍이 옥사(獄死)하고 그 아내 정부인이 아들 증남을 키우며 사는데 한대홍의 친구 박주사가 보살피주게 되고, 전도부인의 도움으로 정부인이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위로를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주사는 친구 한대홍과의 신의를 지켜 정부인과 그 자녀를 보살피게 되며 작품 구성 속에 어떠한 갈등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작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7회분부터 23회분까지는 전도부인의 기독교 신앙 및 성경에 대한 설명과 문답형식으로 짜여져 있어 기독교 신앙에 의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화기 기독교소설의 유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몽조>는 구소설(舊小說)의 끝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가의 개입과 친구의 부인과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박주사의 성격 등에서 구소설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문과 구별하는 대화기법의 사용, 단락구분, 문장 속의 생략부호 사용, 사실적인 문장묘사, 자주독립의 개화 의식, 기독교정신 등을 통해 개화기 신소설(新小說)의 특징을 풍부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동교회 전도부인이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정부인을 방문하여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독교의 믿음·소망·사랑을 전하며, 상담을 통해 정부인의 마음을 신앙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의 묘사는, <몽조>가 개화기 기독교소설의 본격적인 전범(典範)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속에 이 몽킨 심각이 다아 푸러지고 근심이 읊깃소 밋다뿐이깃소 아마아 너가 다아 죄가 만어 밋갓남정도 도라갓지요.....엇딴케 회기흐나아.....잘밋고 구하면 도라갓던 슴이라두 다시 살아올수가 잇깃소.....네에.....그라면 밋다뿐이깃소 이너몸이 부서져서 콩가루 세모리가 되더라두 밋다뿐이깃소.....네에.....이너머리를 버여 신을 삼아 신고라두 가다뿐이깃소 이구우 엇지하면 회기흐나아 하나님 마암소서」 하고 뵈치사 복지는 안치마는 주홍갓튼 피눈물이 눈에서 평평평 소사는다.<sup>12)</sup>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정부인에게 전도부인이 찾아와 진심어린 설교로 감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개화기 당시 고난 속에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기독교 신앙의 문학적 형상화를 읽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기며 죄사함을 받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제시하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간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부하게도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강조한다.

<몽조>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순된 사회 속에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독교 진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정부인은 민족의 위기 속에 당면한 개인문제로 절망하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독교신앙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에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민족과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기독교적 구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구우 엇지하면 회기흐나아...하고 뵈치사 복지는 안치마는 주홍갓튼 피눈물이 눈에서 평평평 소사

12) <황성신문> 제2582호.

는다'는 서술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도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회개'의 묘사를 읽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를 한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회개의 증표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다고 결단한다. 이와 같은 성경의 '회개' 모티프가 <몽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자의 성경적 상상력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3) <박연폭포>

<박연폭포>에는 이지평과 그의 부인 이씨, 그들의 두 아들 시영, 시웅 형제 그리고 최성일과 김부장 및 그의 부인 윤씨, 딸 애경, 고대장 등이 등장한다. 공간적 배경은 송도와 서울이다. 친구관계인 이지평과 김부장은 그들의 자녀인 시웅과 애경을 결혼시키기로 언약하게 된다. 시웅이 도적들에게 납치되는데 최형일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최형일은 원래 청백한 위인이었지만 잠시 도적들에 연루되었다가 빠져나오며 시웅을 도적들로부터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웅과 애경은 부모님들의 결정에 따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웅은 돈을 노리던 도적들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며, 애경은 도적의 두목 고대장에게 화를 당하고 예수교회 소속병원 의사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시웅의 어머니는 애경이 화를 입은 것을 알고 결혼을 반대하는데, 시웅의 일관된 태도와 주위의 도움으로 결혼이 성사된다. 이들의 만남은 비록 부모의 뜻에 의한 것이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키되, 상대방의 인간 조건이 흠이 생겼을지라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인간애를 찾아볼 수 있다.

고대장을 만나 화를 당한 애경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남성예수병원 의사가 애경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가 치료해준 것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연상시킨다. 이 비유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간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이야기다. 이는 <박연폭포>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임을 알게 한다.

남성병원 의사의 성경에 기초한 사랑으로 치료받아 시웅과 결혼하게 되는 애경도 자신의 원수인 고대장을 만나게 되자 성경을 주어 읽게 하고 회개시킨 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용서함으로 성경의 자비를 실천한다. 이로 인해 '포악한 강도'였던 고대장은 성경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 '양선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당하야 목석이면 엇지 감복지 아니하리오 이경의 주던 바 성경을 철시  
업시 넓으며 그전에 헛헛 일을 크게 후회하야 힘써 악행을 바리고 선한일만 헛헛니 일  
노브터 포악한 강도가 변하야 양선한 의인이 되었더라<sup>13)</sup>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한 사람의 인격을 부정적인데서 긍정적인 존재로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억울하게 당한 그리스도인의 원수갚은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원수를 대하는 기독교 사랑의 윤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박연폭포>라는 제목은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된 개성군에 있는 폭포의 이름인데, 문일평은 박연폭포(개성), 구룡폭포(금강산), 대승폭포(설악산)를 조선의 삼대 명폭으로 치고 있다. 김시습의 <용궁부연록>도 박연폭포가 배경이다. 고향이 개성인 지은이 이상춘의 출생 지역에 있는 폭포이기에 이 작품의 제목은 지은이의 성장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포는 절벽을 흐르는 물에 속도가 붙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인데, '물'이 사물을 깨끗케 하며 생명을 있게 하는 요소라고 볼 때, '박연폭포'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배금주의, 탐욕, 증오심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폭포수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애경은 원수를

13) <박연폭포>, 唯一書館, 1913. 99~100면.

사랑으로 갚는 기독교적 사랑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일상인을 뛰어넘는 독특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을 철시업시 넓으며 그전에 헝헝일을 크게 후회하야 힘써 악행을 바리고 선한일만 헝헝니 일노브터 포악한 강도가 변하야 양선한 의인이 되었더라’는 서술을 보면 ‘성경’의 능력이 잘 표현되고 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36절)고 선포하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37절)하며 문제해결의 길을 묻는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38절)라며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사도행전은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증거한다(39절). <박연폭포>에서 고대장이 성경을 읽은 뒤 악행을 버리고 선한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작품 속에 ‘뉘우침(회개)-변화된 삶’이라는 성경적 상상력이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비판과 대안제시 유형의 기독교소설과 성경적 상상력

##### 1)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은 우화소설로서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게, 파리, 호랑이, 원앙새와 회장직을 맡은 짐승까지 아홉 종류의 동물이 등장하며 인간은 한 사람의 작중 화자뿐이다. <금수회의록>은 서언, 개회취지, 제1석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제2석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 제3석 정와어해(井蛙語海, 개구리), 제4석 구밀복검(口蜜腹劍, 벌), 제5석 무장공자(無腸公子, 게), 제6석 영영지극(營營之極, 파리), 제7석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호랑이), 제8석 쌍거쌍래(雙去雙來, 원앙), 폐회 등의 1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금수만도 못한 세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은이가 의리와 도덕의 상실, 분수와 절개의 추락을 탄식하고 있는 대목은 당시의 시대인식에 대한 지은이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결의할 안건으로 내놓은 것은 세 가지다. 사람된 자의 책임을 의논하여 분명히 할 일,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논할 일,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인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 등이 그것이다.

연단에 나온 동물들은 각기 자신들의 특성을 들어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풍자하고 있다. 작중 화자는 인간의 부패성을 시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예수씨의 말씀을 드르니 하나님이 아직도 사롬을 스랑하신다하니 사롬들이 악한 일을 만히 헝헝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잇는길이 잇다헝앗스니<sup>14)</sup>

지은이가 우화적 형식을 도입한 이유는,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천리에 어기어지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개탄한 내용에서 보듯이, 지나친 현실 부정의 사상을 동물의 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다소나마 현실적 저항을 둔화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하겠다. 이 소설은 작품의 내용이 양반, 관료 사회를 지나치게 풍자하였다고 하여 한때 금서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아홉 마리의 동물들은 기독교신앙의 바탕위에서 동물의 성격을 의인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의 정치, 사회,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씨의 말씀을 드르니 하나님이 아직도 사롬을 스랑하신다하니 사롬들이 악한 일을 만히 헝헝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잇는길이 잇다헝앗스니’라는 대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연상시킨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회개와 구원의 길이 성경적 상상력을 통해

14) 安國善, <禽獸會議錄>, 皇城書籍組合, 1908. 48~49쪽.

작품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세중>

<경세중>에 나타난 기독교적 윤리 추구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작품의 서두에서 서술의 초점이 유산객에서 금수들로 옮겨가는 부분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 혼자 말노 휘 숨차고 그러면 그러치 도쳐 명당이로고 앓가 시도소리가 들니더니 로형이 하섯나  
보구려 네 그리하엿소 어딴로 오시는 친구들이시오 네 우리는 답산든니는 사름들이오 흐고 엇구슈흐  
게 슈작을 건네며 산리니 디리니 무어시니 혼참 니야기가 장황홀제 눈멀거니 쓰고 썰먹은 병어리가  
되엿서<sup>15)</sup>

호화 자제와 풍수들이 만나 수작하는 중에 한쪽에 각종 동물들이 모여들자 그들은 썰먹은 병어리가 된다.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광경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양회장과 열네마리의 동물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호화 자제와 풍수들의 문제요, 인간 세상의 문제인 것이다. 끝부분에서는 양회장의 폐회사가 있는 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일제히 작별가를 부른다.

일제히 작별가를 흐느덕 찬미 상데 복의 근원 텃하만물 모도 칭송흐고 아멘 흐더니 다 헤어져 가  
더라 한편에 숨어 안졌던 더 사름들의 귀가 열녔는지……<sup>16)</sup>

작중 화자의 설명과 언급이 나와 있는 끝부분이다. 작별가의 가사는 찬송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제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천하만물이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것이다. 끝부분에 한줄로 적혀 있는 ‘한편에 숨어 안졌던 더 사름들의 귀가 열녔는지……’라는 내용은 이 작품의 저작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에 숨어 앉아 있던 사람들은 유산객 즉 산에 놀러 나온 사람들, 호화 자제와 풍수들을 말한다. ‘한편에 숨어 앉았던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사름들의 귀가 열녔는지……’라는 표현은 이 작품의 제목인 ‘경세중’과도 상통하는 말이다. 이 작품은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쓰여진 글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한 줄에는 저작 의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자의 기대감이 형상화되어 있다. 작자 김필수는 개화기의 지성인이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당대의 기독교지성인과 민족공동체를 향해 개개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메시지를 동물들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서두에 유산객이 등장한 뒤 동물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마지막 결미에서 다시 유산객에게 포커스가 맞춰짐으로 「경세중」은 하나의 액자형식을 갖춘 소설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물들의 회의는 결국 인간의 감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물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특정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비해 보다 실제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 때문에 「경세중」은 개화주의와 기독교정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세중」은 열네마리의 동물들을 등장시켜 인간윤리의 실종과 부당한 재판, 부도덕한 양심, 염치 없음, 교육의 실종, 무절제, 간사함, 사치, 허랑방탕, 게으름, 지혜없음, 인생목적의 망각, 불륜으로 인한 사회문제, 탐욕과 분냄이라는 인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작품의 이면에서는 경종을 받은 인간들이 인간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며 양심과 염치를 지키고 기독교 교육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절제하며 신의있고 검소한 삶, 성실-근면-용기있는 삶, 인생목적의 발견과 실천, 올바른 결혼관과 자녀 사랑, 생산적인 의욕과 침착한 생활태도를 목시적으로 권면함으로 기독교적인 윤리를 모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메시지로 담긴 인간 생활에 대한 비판과 목시적 권면 즉 기독교적 윤리 모색에는 기독교사상이 농밀하게 육화되어 있음을 창세기, 잠언서, 열왕기서, 이사야서 등의 해박한 성경 인용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sup>17)</sup> 이 작품은 한국 개화기의 개인문제, 사회문제를 동물들의 등장을 통한 문학적 형상화로 드러내고 기독교신앙으로 인간 윤리의 문제를 치

15) 金弼秀, <警世鐘>, 광학서포, 1908. 512쪽.

16) <警世鐘>, 561쪽.

17) 줄고, 한국 개화기소설과 기독교, 숭실대 대학원 논문집 제13집, 1995. 40면.

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열다섯마리의 동물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개인의 죄성을 통렬히 드러내며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개인윤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히 작별가를 흐느끼 찬미 상대 복의 근원 텅하만물 모도 칭송하고 아멘 흐더니 다 헤어져 가더라’는 대목은 성경적 상상력에 근거한 찬송 가사의 내용을 주인공들이 부르고 헤어진 내용이다. 로마서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도가 있다. 이와 같은 성경말씀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 작별가의 가사에 수용된 것을 작품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상상력이 <경세중>에 잘 나타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신앙 실천 유형의 기독교소설과 성경적 상상력

### 1) <성산명경>

이 작품에서 신천옹은 우선 만물의 창조주이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儒敎와 佛敎, 그리고 禪敎를 믿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한다.

그잇흔날 아참에 신턴옹이 일즉니러나 싱각흐되 어적게 성산에서 맞나든 사람들이  
즈품도 준슈하고 총명도 절등흐나 모양을보건대 하나도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라 엇지 탄식홀일이 아니리오 내가 아뭇조록 권면호야 구세주를 밋게히리라 이에  
엎다려 하느님의 기도하고<sup>18)</sup>

여기서 신천옹이 유·불·선 세 대표와 만나 대화를 갖기에 앞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 기도의 파장은 신천옹의 지혜로운 대화가 타종교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성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전적 임재를 추구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신천옹이 기도중심의 생활을 하는 구도자임을 알 수 있다.

신천옹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만물을 만들고 창조된 사람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음을 말하고 부처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에 태어난 성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천상천하에 자기만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혀 둔다. 신천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신다는 천륜(天倫)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인륜(人倫)과 초목금수는 피조물로서 사람이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물륜(物倫)을 설파한다. 사람됨이 대단히 존귀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구세주를 신봉하여 천륜의 이치를 순종하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려 물륜의 이치를 궁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경하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복된 삶을 살다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고 변증한다.

<성산명경>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앞에는 시(詩)가 한편씩 제시되고 있어 각각의 전개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 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신령한 성품을 지닌 인간, 공평하게 만들어진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진도와 원각과 백운과 신천옹 네 사람이 함께 만나 토론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형상화하고 있다. 마지막 시는 네 사람이 진중한 토론 끝에 구원의 길이 복음에 있음을 깨닫고 회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성산명경>은 기도중심의 생활과 그 능력으로 기독교변증을 통해 타종교의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신천옹은 유

18) 崔炳憲, <聖山明鏡>, 東洋書院, 1911. 8쪽.



불선 3교의 지도자들과 심도있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며 올바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지도자의 진정한 신앙인격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내가 아뭇조록 권면하야 구세주를 밋게하리라 이에 업다려 하느님께 기도하코’라는 대목에서는 사도 행전 16장 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41절의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다. <성산명경>의 주인공 신천용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복음증거와 기도에 관한 성경적 상상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2) <고영규전>

<고영규전>의 지은이 배위량 부인(애니 로리, A. L. Adams 1864~1916, 재한기간 1891~1916)은 1864년 9월 15일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장성하여 1882년까지 웨스턴여자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883년에는 하노바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녀는 하노바대학 생활 중에 부군이 될 배위량을 만났다. 1884년에는 와쉬번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그녀는 일기장에서 배위량을 조용하고 다소 근엄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YMCA 일에 참여했던 그녀는 배위량과 헌신의 삶에 동참한다. 배위량이 1890년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로부터 한국선교사로 공식 승인을 받아, 두 사람은 그해 11월 결혼을 하고 바로 그날 임지를 향한 여정에 오른다.

배위량 부부가 일본을 거쳐 조선의 인천 부두에 도착한 것은 1891년 2월 1일 주일 저녁이었다. 신혼여행을 2개월에 걸친 조선으로의 거칠고 생경한 여정으로 대신한 배위량 부부는 본격적으로 도전적인 선교사역을 시작한다. 1897년에 숭실학당을 세워 숭실대학교의 설립자가 된 배위량을 돕는 배위량 부인에게 있어서 조선은 단순한 선교지를 넘어 영면의 안식처가 되었다.<sup>19)</sup>

<고영규전>이 출판된 1911년이 배위량 부인의 한국 거주 20년이 넘는 때였으므로 그녀는 이미 한국인과 같은 생활을 하며 작품을 썼을 것이다. 배위량 부인은 한국에서의 25년 여정을 마치고 1916년 6월 9일에 52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그녀의 묘비가 남편 배위량의 이름과 함께 절두산 근처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세워져 있다. 그곳에는 목회자가 되었던 두 아들의 묘비도 함께 있다. 배위량 부인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신혼시절로부터 소천할 때까지 한국과 한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배위량 부인의 단편소설 <고영규전> <부부의 모본>은 기독교 신심을 고취한 작품으로,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고영규전>에는 고영규, 고영규의 아내 길보배, 고영규의 할머니, 전도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자연 속에서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소리를 발하고 노루가 돌아다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다. 하지만 소년 영규는 항상 만나게 되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 본연의 의구심을 드러낸다. ‘구름’의 발원지와 목적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아름다운 새가 소리를 발하는 이유를 추구한다. 노루의 움직임은 모습을 보며 사색하는 가운데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반문하며 인간의 존재 의미를 탐구한다. 영규가 자연의 사물을 보며 자신에 대한 존재의미를 추구하다가 부딪친 문제가 사후의 일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던 그의 관심은 신령한 마음을 얻는데 모아진다. 신령한 마음은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마음이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지기 이전의 순수하고 깨끗한 정서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생명 본연의 향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규는 이 신령한 마음을 얻기 위해 음식도 먹지 않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도 정신적이며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는데 우선권을 두고자 한다. 소년시절의 영규는 호기심이 많고 깨끗한 마음으로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다.

영규는 결혼한 뒤 아내 길보배가 딸만을 낳게 되자 가출하여 허랑방탕하게 지낸다. 그는 전도인의

19) 박은구, 숭실대학교의 첫 장을 연 裴緯良, 인물로 본 숭실 100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3). 참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서울까지 가서 외입잡기판으로 돌아다닌다. 고영규는 투전을 하다가 옥에 갇히어 전도자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 아내의 도움으로 귀가한 영규는 성실한 남편이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고영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인생의 존재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잊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된다.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길보배는 성장할 때부터 여러 동생들을 보살필 만큼 성실한 여성이다. 고영규의 아내가 된 후로 딸만 내리 셋을 낳게 되자 소박을 맞는다. 보배는 옥에 갇힌 영규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할 때 한참 절망하다가 받을 팔아 돈을 보내준다. 하지만 나중에는 회심하고 돌아온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길보배는 성실한 인물로 자신의 정체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고영규의 할머니는 샤머니즘적인 주문만을 외우며 한평생을 살게되는 인물이다. 소년 영규가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아 밥을 먹지 않고 고심할 때에도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나무라며 주문을 외운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불화하던 손자 내외의 생활이 다복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 할머니는 변화되지 않는 전형적인 토속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주변상황, 즉 손자 내외가 변화되어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할머니는 변화하지 않는 성격의 틀과 변화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사고의 틀이며, 변화하는 것은 상화 변화에 대하여 감동하는 마음이다.

넋외가 서로다정히안져 밤식도록 성경보고 기도하며 그혜여진 동안에서로 맛났던일을  
다고하고 피츠즈복하야 용서하며 서로웃고 흠씩우니 일기락원에 금실지락을 일우엇더라  
그할마니가 이일을 보고 니업는터거리를 흔들며 울툑툑외이느중에 흐느말이 이런일은  
내가 처음본다 헛더라<sup>20)</sup>

전도자는 고영규가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전도인은 나중에 고영규가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고영규전>의 사건 전개과정을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영규의 인생에 대한 질문→②영규의 가출→③예수를 통한 중생→④보배의 고난과 인내→⑤화목한 가정과 복음 전파. 이 작품의 주제는 인생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던 인물이 헛되이 살다가 기독교적인 거듭남의 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데 귀결되고 있다. 주인공 고영규와 길보배는 인간의 실존이 죄로 말미암아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피츠즈복하야 용서하며 서로웃고 흠씩우니’라는 대목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4절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용서와 화목을 지향하는 인간관계 형성에 관한 성경적 상상력이 적용된 예다.

### 3) <부부의 모본>

여주인공 양진주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박명실의 아내가 되는데, 진주는 남편 명실의 진일한 사랑을 받으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양진주는 신혼 초기부터 아들을 낳는 과정까지 시어머니의 시기로 인해 고난을 겪지만 박명실의 보호 속에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한다. 진주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해 나가는 인물이다. 박명실의 부모는 박명실을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킨다.

20) 배위량부인, <高永規傳>, 야소교서회, 1911. 18쪽.

두 사람이 혼몸이되면 엇지ㅎ야 스스로 말을듯지 아니ㅎ고 압제ㅎ며 학딕ㅎ수잇느뇨  
 또 내가 이 처녀를 몸과 ㄴ치 스랑ㅎ면 엇지괴롭게ㅎ며 곤고히 부릴수 잇느뇨 ㅎ고 또  
 고린도전서 칠장 스절에 사롬이 혼번 장가 간후에 남편이 주장홀터이라 혼을 보고  
 명실이 므옴에 베르기를 이 말슴이 비록 넷적 문장과 소위 호걸의 말과는 판이 홀지라도  
 나는 하느님의 말슴을 좇츠리라 ㅎ더니<sup>21)</sup>

며느리를 맞이한 명실의 모친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긴장감을 갖게 하지만, 명실의 지혜로 모친은 명실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결집 부부의 불화를 보며 깨닫게 된다. 양진주의 부모는 양진주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현숙한 인물로 키워낸 주역이다. 기독교 가정의 전형적인 부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결집 부부는 남편이 호령으로 아내를 다스리려 하고 아내가 말대꾸와 문제 회피로 남편을 저버리는 모습을 통해 불화한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에 욕하고 구타하며 서로 헤어지는 장면 묘사를 통해 결집 부부의 화목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의 모본>을 사건 전개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박명실의 성장과정→②양진주의 성장과 결혼→③시어머니의 시기와 변호→④시어머니의 변화→⑤논찬을 통한 당부. 이 작품의 주제는聖經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결혼관의 소중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모친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신앙적 삶의 실천을 통해 낙원과 같은 가정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명실과 양진주는 인내와 대화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생활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체험적 진리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처녀를 몸과 ㄴ치 스랑ㅎ면 엇지괴롭게ㅎ며 곤고히 부릴수 잇느뇨’라는 대목에서 에베소서 5장 28절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성경말씀을 연상하게 된다.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도리의 성경적 상상력이 <부부의 모본>에 나타난 경우다. 이 소설에는 부부간의 존경과 사랑의 소중함에 대한 표현이 성경적 상상력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 6. 결론

우리나라의 개화기는 조선시대와 근현대를 이어주는 시대적 過渡期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時期며, 총체적인 變革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면서 100여편이 훨씬 넘는 개화기소설이 발표되었으며, 그중 20여편은 작품 속에 기독교정신을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기독교소설로 분류된다. 이 소설들에는 한결같이 성경적 상상력이 동원되고 있다.

개화기에 서양의 문화와 기독교사상을 수용하면서 개화와 자주독립, 미신타파와 신교육, 새 도덕과 남녀평등사상 등의 주제를 보이는 개화기소설이 1906년 이인직의 <혈의 누>를 효시로 이해조, 최찬식 등 50명 이상의 作者에 의해 발표되었다. 190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無署名小説로 연재된 <쇼경과 안증방이 문답>은 기독교 신약성경에서 소재를 가져와 외세와 결탁하여 매국적 행위를 자행한 급진 개화파와 민족적 위난에 속수무책으로 시세에만 이끌려간 봉건정부의 외세수용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근대화를 지향해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나아갈 지평을 제시<sup>22)</sup>해주었다. 기독교 주제를 가진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07년 1월과 2월에 걸쳐 《태극학보》에 연재된 백약춘사의 <다정다한>에서부터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 이르는 동안 24회에 걸쳐 《황성신문》에 연재된 반아의 <몽조>도 기독교 신앙을 문학적 수사학을 통해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 밖에 기독교 주제를 가진 개화기소설로 <금수회의록> <경세종> <성산명경> <박연폭포> <고영규전> <부부의 모본> <고목화> <재봉춘> <눈물> <월하의 자백> <옥호기연> <완월루> <명월정> <쌍옥적>

21) 배위량부인, <부부의 모본>, 야소교서회, 1911. 22쪽.

22)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説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0. 181쪽. 참조  
 洪一植,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91. 140쪽. 참조

<모란병> <은세계> <원앙도> <두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개화기소설 전체 작품 중에서 기독교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에게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기독교신앙을 수용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힘써 전하려는 유형과 기독교정신에 기초한 인생문제해결과 개화사상이나 자주독립사상을 중요시하는 유형, 기존의 전통사상을 고수하기 위해 기독교를 멀리 하려는 유형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다정다한> <몽조> <금수회의록> <경세중> <성산명경> <박연폭포> <고영규전> <부부의 모본> 등의 개화기 기독교소설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 주제의식은 민족계몽과 영혼구원, 기독교신앙을 통한 인간고통의 극복, 회개를 통한 죄문제 해결, 기도와 성경중심의 신앙생활과 적극적인 전도, 화목한 가정의 구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신앙이 육화된 삶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주제의식은 우리 문학사 속에서 문학이 추구하는 인간 구원의 문제를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그 시공간적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까지 작품을 통해 형상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시간적 범위란 기독교적 시간개념이 도입된 태초로부터 종말선상과 그 이후의 영원까지 이르는 직선적이며, 무한대한 범위를 의미한다. 공간적 범위란 기독교적 공간개념이 개입된 육신적 삶의 공간과 육신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천국과 지옥의 공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상과 같은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길과 믿는 자가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방법의 문제를 의미한다.

개화기의 기독교소설은 정치·경제적 변화와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통한 삶의 변화 의지를 소설 양식으로 형상화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믿음을 통한 구원과 회개를 통한 존재의 변화와 기독교윤리를 통한 사회변혁,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수사학을 함축하고 있다. 역사의 과도기라는 풍토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왕성하게 발표되었던 개화기의 문학 중에서도 그 시대의 기독교소설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소망과 화목과 거듭남을 통한 치유와 기독교적 애국애족정신 더 나아가 천국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表象하였다. 힘의 논리를 사랑의 윤리로, 어두운 현실을 밝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응하며, 성경의 말씀이地上的 사람들을 통해 실천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제의식으로 제시했다. 개화기 기독교소설이 우리 문학사의 한 기간을 생명의 부활과 회복과 구원의 미학으로 충실히 채워주었던 것이다. 문학과 기독교신앙의 궁극적 지향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볼 때, 개화기 기독교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는 우리 소설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한 동력으로써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데 있다. 개화기 기독교소설의 특징과 성경적 상상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정다한>의 삼성선생은 애국지사가 고난속에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여 역경을 극복하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작품 속 인물변화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바울과 실라에 관련된 성경의 기도와 찬미 모티프가 성경적 상상력에 근거하여 <다정다한>에서 삼성선생의 변화된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조>의 정부인은 민족의 위기 속에 당면한 개인문제로 절망하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독교신앙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에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민족과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기독교적 구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의 ‘회개’ 모티프가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자의 성경적 상상력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박연폭포>의 애경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기독교적 사랑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일상인을 뛰어넘는 독특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 소설에서 고대장이 성경을 읽은 뒤 악행을 버리고 선한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작품 속에 ‘뉘우침(회개)-변화된 삶’이라는 성경적 상상력이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었다.

<금수회의록>의 아홉 동물은 기독교신앙의 바탕 위에서 동물의 성격을 의인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의 정치, 사회,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소설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구원의 패러다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한 성경적 상상력에서 연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세종>의 열다섯 동물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개인의 죄성을 통렬히 드러내며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개인윤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 찬양과 축복 및 아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성경적 상상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성산명경>의 신천웅은 유불선 3교의 지도자들과 심도있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며 올바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지도자의 진정한 신앙인격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아울러 주인공이 보여준 복음증거 의지와 기도의 신앙이 성경적 상상력에 기초한 것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

<고영규전>의 고영규와 길보배는 인간의 실존이 죄로 말미암아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주인공들이 보여준 용서와 화목의 이야기가 성경적 상상력의 소산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부의 모본>의 박명실과 양진주는 인내와 대화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생활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체험적 진리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 존경과 사랑에 대한 도리의 성경적 상상력이 이 작품에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정다한>의 삼성선생과 <몽조>의 정부인, <박연폭포>의 애경은 고난을 기독교신앙으로 극복한 주인공들이었으며, <금수회의록>에서 의인화된 아홉동물과 <경세종>에서 의인화된 열 다섯 동물은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 인간의 죄상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기독교 인간상을 제시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산명경>의 신천웅과 <고영규전>의 고영규와 길보배, <부부의 모본>의 박명실과 양진주는 기독교신앙을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숙한 기독교 신앙인격을 지니고 있었다. 개화기 기독교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인간의 죄악상을 기독교윤리의 대안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비판하고, 기독교세계관이 제시하는 올바른 인간 삶의 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역동적인 등장인물 설정의 한 예를 남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개화기 소설에 이와 같은 기독교 주제들이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작가들을 통해 성경적 상상력이 효과적으로 작품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0.

白岳春史, 多情多恨, 太極學報, 6號~7號, 1907.

槃 阿, 夢潮, 皇城新聞, 第二千五百五十六號~第二千五百八十四號, 1907.

安國善, 禽獸會議錄, 皇城書籍組合, 1908.

金弼秀, 警世鐘, 광학서포, 1908.

崔炳憲, 聖山明鏡, 東洋書院, 1911.

裴夫人, 高永規傳·부부의 모본, 耶穌敎書會, 1911.

李常春, 朴淵瀑布, 唯一書館, 1913.

소재영·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한국 기독교문학 총서 1,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金奉郡,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민지사, 1997.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2).

현길언, 성서의 문학과 한국의 기독교문학, 현대문화의 이해를 넘어서,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김우규,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문성숙, 개화기소설론연구, 새문사, 1994.

문용식, 테마별로 읽는 기독교소설, 한국로고스연구원, 1997.  
 蘇在英,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문화사, 1999.  
 蘇在英·權永濤·韓承玉·曹圭益,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0.  
 승실대 韓國基督教文化研究所 편, 한국 기독교와 예술, 도서출판 풍만, 1987.  
 승실인물사편찬위원회, 인물로 본 승실 100년(제1집),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2.  
 이상섭, 언어와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91.  
 李敏子, 開化期 文學과 基督教思想 研究, 집문당, 1989.  
 임영천,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태학사, 1995.  
 추태화, 21세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망,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崔泰榮, 基督教의 神名考-‘하나님’으로의 정착-,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한승옥, 한국 현대소설과 사상, 집문당, 1995.  
 金京完, 韓國 開化期 基督教小說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9.  
 김경완, 기독교문학과 삶의 변화,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1) 김정완, 기독교문학과 삶의 변화,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5쪽.
- 2) 崔泰榮, 基督教의 神名考-‘하나님’으로의 정착-,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2쪽.
- 3) 소재영, 「한국문학사상과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도서출판 풍만, 1987. 86쪽.
- 4) 개화기의 기독교소설에 대한 언급이 있는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송민호, 韓國 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0.  
 이재선·김학동·박종철, 開化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81.  
 조신권, 韓國文學과 基督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소재영, 「한국 문학사상과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도서출판 풍만, 1987.  
 권영진,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양상」, 『한국 기독교와 예술』, 도서출판 풍만, 1987.  
 김영한, 한국 사회와 기독교문화, 위의 책.  
 소재영·권영진·한승옥·조규익,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홍일식, 韓國 開化期の 文學思想 研究, 열화당, 1991.  
 김우규, 「한국 작가의 기독교 의식」·「한국 기독교문학 소사」,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권보드래,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금수회의록〉, 〈경세종〉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 도서출판 월인, 1998.  
 소재영·김정완, 개화기소설, 한국 기독교문학총서 1,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 5) 韓承玉, 「基督教과 小說文學」, 공저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107쪽.
- 6) 李秀浩, 開化期の 基督教의 要素,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60쪽.
- 7) 김병철,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 을유문화사, 1980. 71쪽.
- 8) 蘇在英·金京完, 『유옥역전』 해제와 원문, 숭실어문 제13집, 숭실어문학회, 1997. 419~458쪽.
- 9) 김병철, 「성서번역사」,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70~72쪽 참조.
- 10) 「多情多恨」, 307쪽.
- 11) 사물 상호간에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 12) <황성신문> 제2582호.
- 13) <박연폭포>, 唯一書館, 1913. 99~100면.
- 14) 安國善, <禽獸會議錄>, 皇城書籍組合, 1908. 48~49쪽.
- 15) 金弼秀, <警世鐘>, 광학서포, 1908. 512쪽.
- 16) <警世鐘>, 561쪽.
- 17) 줄고, 한국 개화기소설과 기독교, 숭실대 대학원 논문집 제13집, 1995. 40면.
- 18) 崔炳憲, <聖山明鏡>, 東洋書院, 1911. 8쪽.
- 19) 박은구, 숭실대학교의 첫 장을 연 裴緯良, 인물로 본 숭실 100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3). 참조.
- 20) 배위량부인, <高永規傳>, 야소교서회, 1911. 18쪽.
- 21) 배위량부인, <부부의 모본>, 야소교서회, 1911. 22쪽.
- 22)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0. 181쪽. 참조  
 洪一植,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91. 140쪽. 참조